Lamentate for piano and orchestra

- □□

정보

개요
곡명: Lamentate: Homage to Anish Kapoor and his sculpture “Marsyas”
작곡가: Arvo Pärt (1935–)
작곡 시기: 2002년
초연: 2003년 2월 7일, Tate Modern Turbine Hall, London. Hélène Grimaud 피아노, London Sinfonietta, Alexander Briger 지휘
장르: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작품
범위: 전곡. 전통적인 협주곡 악장 대신 Minacciando 부터 Fragile e conciliante 까지 열 개의 연결 구획이 이어진다.

IMSLP: Category:Pärt, Arvo

Wikipedia: Lamentate

Arvo Pärt의 Lamentate는 Anish Kapoor의 설치 작품 Marsyas와 그것이 놓였던 Tate Modern Turbine Hall의 공간에서 출발한 피아노와 관현악 작품이다. 2002년에 완성된 단악장 연속 구성 안에서 열 개의
구획이 거대한 관현악의 충격과 취약한 피아노의 발화를 교대로 배치하며, 초연판과 초연 뒤 수정된 판본은 서로 다른 연혁으로 구분된다.

출판 정보와 판본

Tate & Egg Live가 작품을 위촉했고 Universal Edition이 악보를 출판한다. Marsyas는 길이 약 150m, 높이 약 35m에 이르는 세 개의 강철 고리와 붉은 PVC 막의 설치물이었다 . Arvo Pärt Centre는 Pärt가 조각의
물리적 크기뿐 아니라 옛 발전소를 개조한 Turbine Hall의 울림과 관객이 공간을 이동하며 느끼는 시간 감각을 작곡의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세계 초연은 2003년 2월 7일 Turbine Hall에서 Hélène Grimaud, London Sinfonietta, Alexander Briger 의 연주로 열렸다. 초연 뒤 수정본은 2003년 11월 10일 폴란드 Sejny Festival에서 Marrit Gerretz-Traksmann, Białystok Philharmonic, Tõnu Kaljuste가 처음 연주했다. 두 공연은 서로 다른 판본의 이력을 보여 주므로, 초연의 공간과 수정본의 연주를 하나의 고정된 사건으로 합치지 않는다.

Pärt Centre는 제목의 애도를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장송의 의미보다 세계의 고통과 절망을 감당해야 하는 살아 있는 사람을 향한 애도로 설명한다. 또한 피아노를 ‘하나 ’에 주의를 모으는 악기로 보며, 그 하나가 한 사람 또는 1인칭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작곡가의 설명은 작품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교향시로 읽기보다, 물질적으로 거대한 관현악과 개인의 발화가 만나는 장면으로 이해하게 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35–40분이다. Arvo Pärt Centre는 이 범위를, IRCAM은 약 37분을 제시하며, ECM의 Alexei Lubimov·SWR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Andrey Boreyko 녹음은 37분 4초로 표시된다. Onutė Gražinytė와 Lithuani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의 Accentus 녹음은 약 35분 49초다. 구획 사이의 호흡과 템포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기관의 범위를 기본값으로 삼는다.

편성

독주 피아노와 다음 관현악으로 편성된다.

목관: 플루트 3,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타악과 현악: 팀파니, 타악기 연주자 4명, 현악 5부

Arvo Pärt Centre와 IRCAM은 이 구성을 3222, 4220, timpani, percussion 4, strings 로 요약한다. 일부 판본과 2차 자료는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의 겸주 악기나 클라리넷 ·트럼펫의 조성을 더 구체적으로 적지만, 기관 자료가 공통으로 확인하는 편성은 위 목록까지다 . 피아노는 관현악 안의 건반 파트가 아니라 독립된 독주 악기로 놓인다.

열 개의 연결 구획

ECM의 공식 음반 해설과 Universal Edition 계열 자료는 이 곡을 단악장으로 설명하면서 열 개의 성격 구획을 차례로 제시한다. 구획명은 전통적인 악장명이 아니라 음향과 발화의 상태를 가리키며, 다음 구획으로 끊김과 연결을 동시에 만든다.

1. Minacciando

‘위협적으로 ’라는 뜻의 표제가 관현악의 큰 타악과 금관을 앞세운다. Pärt Centre가 설명한 조각의 압도적인 물질성과 Turbine Hall의 울림이 첫 구획의 밀집된 음향 배경으로 나타나며, 개인적인 피아노 발화는 뒤의 구획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2. Spietato

가차 없는 성격의 관현악 압력이 이어진다. Minacciando 에서 시작한 충격이 더 거칠게 밀어붙여지며 , 작품의 첫 극인 물리적 규모와 폭력적인 에너지가 분명해진다 .

3. Fragile

짧은 피아노 구획이 거대한 소리 뒤에 놓인다. 독주 악기는 관현악과 다른 크기의 발화와 정지로 시간 감각을 바꾼다. Pärt가 피아노를 ‘하나 ’에 집중시키는 악기로 설명한 의미가 이 구획에서 직접 드러난다.

4. Pregando

기도하는 성격의 긴 구획이다. Pärt Centre는 음악 안에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Dies irae 연쇄가 숨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 텍스트는 첫 부분의 극적 정점에서 관현악의 압력을 조직한다. 작품은 미사 전체가 아니라 몇 개의 성스러운 말과 음향적 호흡을 추상적인 재료로 사용한다.

5. Solitudine – stato d’animo

‘고독, 마음의 상태 ’라는 표제가 피아노와 현악의 좁은 대화를 가리킨다. 큰 관현악의 잔향이 물러난 자리에 독주 피아노가 1인칭의 발화를 이어 가고, 정지와 반복이 한 구획의 시간을 길게 늘린다.

6. Consolante

짧은 위로의 구획이 앞선 고독 뒤에 놓인다. 음향의 규모가 잠시 낮아지며, 이 완화는 다음의 날카로운
긴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부로 기능한다.

7. Stridendo

‘긁히듯 ’이라는 표제에 맞춰 금속성의 날카로운 긴장이 다시 올라온다. Consolante 의 완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관현악은 애도의 감정을 한 방향으로 고정하지 않고 불편한 마찰로 되돌린다.

8. Lamentabile

애도하는 성격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중심 구획이다. Pärt Centre가 제시한 정교회 기도서의 troparion은 이 부분과 이후 음악의 길이, 음절 수, 구두점과 연결된 형식 재료로 작동한다. 피아노의 단순한 음형과 관현악의 넓은 울림이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호흡을 만든다.

9. Risolutamente

결연한 움직임이 후반부의 정적을 흔든다. 피아노와 관현악은 앞선 애도의 상태를 반복하지 않고, 종결을 향해 잠시 밀도와 속도를 다시 세운다.

10. Fragile e conciliante

마지막 구획은 취약함과 화해의 두 성격을 함께 표시한다. 처음의 위협적인 음향과 중간의 고독을 지나
피아노와 현악의 잔향이 남으며, 관현악은 그 잔향을 이어 열린 결말로 물러난다. ECM은 이 마지막을 특정
사건의 해결보다 울리는 소리와 침묵의 잔류로 설명한다.

Marsyas, 숨은 텍스트와 피아노
Kapoor의 Marsyas는 그리스 신화에서 Apollo에게 가죽이 벗겨진 satyr의 이름을 빌렸지만, Pärt Centre는 작품이 그 신화를 서사적으로 재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작곡가가 주목한 것은 조각의 붉은 막과 거대한 구조,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물리적 ·시간적 압박이었다 . 관현악의 질량과 피아노의 작은 발화가 두 극으로 배치된 이유도 이 공간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안에는 두 종류의 성스러운 텍스트가 숨어 있다. 첫 부분의 정점에는 Dies irae가, 이후에는 죽음을
성찰하는 정교회 기도서의 troparion이 놓인다. Pärt Centre는 후자의 음절 수와 구두점이 음악의 길이와
호흡을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이 텍스트는 성악으로 발음되지 않지만, 피아노와 관현악이 침묵과 울림을
나누는 방식에 형식적 흔적을 남긴다.

Pärt의 설명에 따르면 피아노는 관현악과 경쟁하기보다 개인의 집중과 발화를 맡는다. 피아노가 ‘하나 ’에 집중한다는 말은 개인의 시선과 관현악의 집단적 규모가 같은 시간 안에서 교차한다는 뜻이며, 열 개 구획은 이 교차를 위협, 고독, 위로, 애도, 화해의 상태로 나누어 보여 준다.

주요 자료

Arvo Pärt Centre – Lamentate

Arvo Pärt Centre – 연대표
IRCAM – Lamentate

Universal Edition – Lamentate

ECM Records – Alexei Lubimov 녹음

Naxos/Accentus – Onutė Gražinytė 녹음